

월간 <객석> '98. 10.
Oct. '98. <Audi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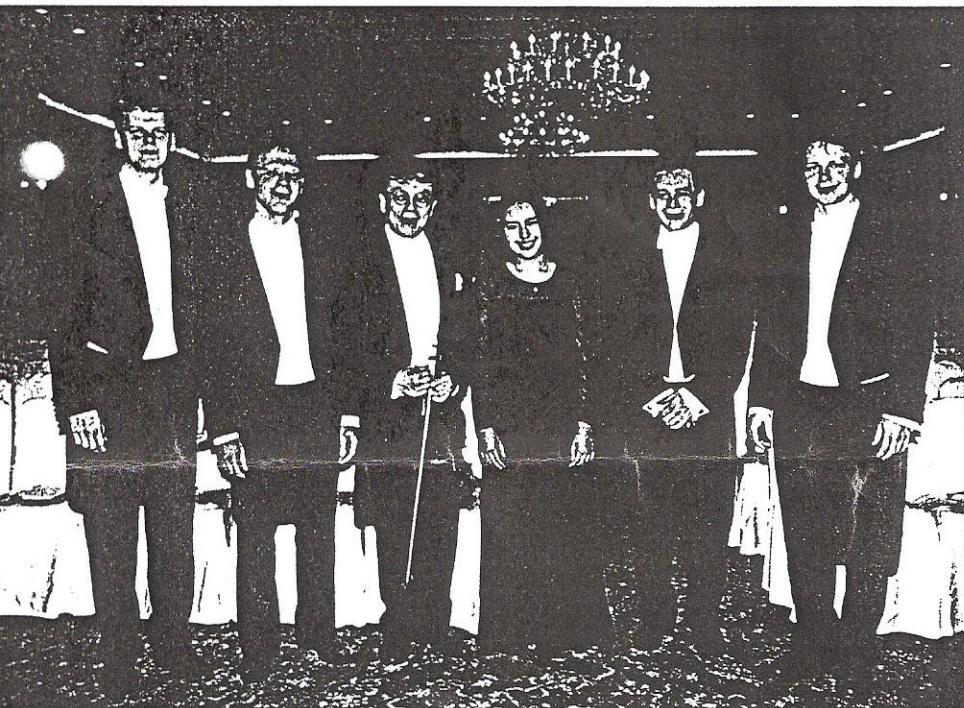
독일 대통령이 마련한 음악회

정치, 경제가 아닌 쇼팽과 로시니가 만난 날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한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은 갖가지 화제를 뿌리고 갔다. 숙소인 신라호텔의 스위트 룸에 비치된 세면도구에는 일체 손도 안 댄 채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사용했고, 수십 명 수행원들의 세탁물 서비스 요청도 와이셔츠 몇 개에 한해 검소한 그들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헤어초크 대통령은 또 연주단체를 대동, 자신의 방한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9월 16일 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기념 음악회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계속됐다.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초대된 이날 음악회는 헤어초크 대통령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그는 "오늘 밤 연주하게 될 14세의 소녀 피아니스트 카롤리네 피셔 양은 한국과 독일이 오랜 동안 다져



연주회가 끝난 후 김민과 카롤리네 피셔, 뉴 아트 색소폰 4중주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온 우호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한국과 독일의 명예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의 화제는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쇼팽부터 로시니까지의 음악입니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맨 앞자리에 착석한 그는 시종 한국과 독일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음악의 향기에 심취한 듯 보였다. 이날 연주는 뉴 아트 색소폰 4중주단의 연주로 시작됐다. 연주 곡목은 조아키노 로시니의 4중주 제4번, 91년 스위스 바젤에서 창단된 이 4중주단은 윈진연주보다는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 시대의 곡을 과감하게 편곡해 연주하며 현대음악 연주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 올 봄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실내악 콩쿠르인 본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한 인연으로 이번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합류하게 됐다.

색소폰만으로 이루어진 금관악기 연주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겠지만 두번째 연주곡인 하랄트 겐츠머의 4대의 색소폰을 위한 4중주 3번 연주까지 듣고 나니 다양한 스타일의 편곡으로 인

한 생동감 있는 연주와 금관악기가 갖는 현대음악 연주에 대한 신선함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순서는 카롤리네 피셔의 피아노 독주. 그녀는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스와 쇼팽의 즉흥환상곡 작품 66을 들려주었다.

지난 1970년 간호사로 독일로 건너간 어머니 김화선 씨와 사진작가인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1984년생이다. 여섯 살 때부터 독일 청소년 음악제에 출전해 다섯 차례나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고, 9세 때부터 베를린 예술대 부속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수학한 제원이다. 94년 베를린 스타인웨이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그녀는 지난해에는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다. 현재는 베를린 바흐 김나지움에 다니면서 한스 아이슬러 음대의 음악수업을 따로 받고 있다고.

만만치 않은 경력이 말해주듯 그녀의 연주는 14세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차분하고 정확한 해석이 돋보였다. 지난 5월 헤어초크 대통령 부인 초청으로 대통령 관저인 벨레위 궁에서 독주회를 가진 인연으로 이번 연주회에 초청됐다고.

연주 후에 한국의 김민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인 그녀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서 정식으로 독주회를 갖고 싶다"는 바람도 털어놓았다. 이날 연주회의 마지막은 김민이 리더하는 한국 바로크 합주단의 연주가 장식했다. 레퍼토리는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스 작품 6 제 5번 D장조.

이날 연주회는 시종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독특한 음색의 악기 편성으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을 전해받은 것 외에도 대통령이 참석한 연주회였음에도 분위기가 전혀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중들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하며 여유롭게 음악을 즐겼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을 떠나 모두가 그저 '청중'일 뿐이었다. (정광열 기자)